

부산

사건·사고

6천여만원 상당 상품권 휴처

부산 사하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 취업해 수천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처 혐의(절도)로 김모(30)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박사이트 운영 3명 구속

부산 금정경찰서는 29일 아파트에 도박사이트 본사를 차려놓고 인터넷 뱅킹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환전해준 혐의(도박개장 등)로 대표 권모(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권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에 '해피머니 성인 PC방' 본사를 차려놓고 영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베스트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개설한 뒤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 또는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 동안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호텔 철거현장서 의사체

28일 오후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호텔 철거현장 내 물웅덩이에서 고철 수집상 김모(6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현장에서 고철을 주으려던 김씨가 수심 5.6m의 웅덩이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외로웠던 추석 이젠 즐거워요”

■주례3동 결혼이민자 '알콩달콩' 명절맞이

“이번 추석은 외롭지 않아요. 왜냐구요? 다정한 친구가 생겨서죠.” 28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센터 체육관.

주례3동 주민자치센터가 진행하는 한글교실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배우는 결혼이민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예절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였다.

큰절 시범을 보인 필리핀댁 로잘린(33)씨는 한글교실의 왕언니. 한국에 온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못하고 혼자서

한복 차려 입고 큰절

삼삼오오 '송편 수다'

“고향 가지 못하지만

친구와 향수 달래요”

이것저것 주위들은 지식으로는 한국생활에서 여전히 어려움 많다는 로잘린씨는 “(한글교실에서) 그동안 몰랐던 동요와 놀이 등 한국문화를 차츰차츰 배우다가면서 스스로 한국사람이 돼 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두 아들도 그런 엄마를 더욱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한복을 차려 입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28일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센터 한글문화교실에서 송편 빚는 법을 배우고 있다.

빛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재잘거리는 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마음껏 말할 수 있어 즐거워요.” 베트남댁 도엔(25)씨는 송편 빚기 보다 손뼉까지 쳐대며 수다 떨기에 더 열심이다. 처음에는 가만히 바라만 보던 또다른 새내기 주부 탄림(22)씨도 마침내 말문을 열고 주변 새댁들과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다.

를 날아가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마리아씨는 지난 6년동안 한 번도 고향에 못갔단다. 그는 “명절이면 고향생각이 더 나지만 친구가 생겨 이번 추석에는 외롭지 않다”며 활짝 웃었다. 주례3동 주민자치센터는 이달 초부터 월·목요일 매주 2차례씩 지역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한글과 육아 등을 가르치는 한글교실을 열고 있다. 고순생 사회복지사는 “결혼이민자들은 명절이면 더 우울해 하는데 이렇게 모이면 다들 좋아해 돕는 우리도 즐겁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운동 전개

부산진구청, 각종 행사 포상품으로 지급키로

부산진구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구청은 매년 명절때마다 환경미화원,저소득주민,현업부서 직원 등에게 지급하던 격려품 대신 이번 추석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지급키로 한 것. 이를 위해 구청이 구입한 상품권은 1천850만원 상당이다.

구청은 이같은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의 확산을 위해 향후 구청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수반되는 포상품으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구청 측은 재래시장 상품권 사기 운송에 전직원이 동참해 추석 선물용으로 1인당 2만원 이상을 구입하는 등 상품권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28일에는 부산 부산진구 부천역앞에서

구청 직원과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재래시장들이 추석대목을 맞아 공동세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집중홍보하고 상품권 발행에 대한 각종 안내와 홍보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부산진구청은 지난 1일 직제개편을 통해 지역경제과내에 '재래시장 활성화팀'을 신설해 총인원 5명을 두고 관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래시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진구청 재래시장 활성화팀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 등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양산

“갈등해소 한나라당 제의

환영하지만 '의도' 의심”

양산시민연합 성명

숙부=최근 한나라당 양산시당 위원회의가 5·31 지방선거로 불거진 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화해 표명과 관련, 양산시민연합이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정치적 의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에 양극화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산시민연합은 29일 '김양수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시민회합을 위해 결자해지의 심정을 표명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대통합과 화해를 위한 사전노력과 과정도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표명을 한 자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연합 대표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완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소·고발 취하는 때를 놓쳐버린 것”이라며 “이를 모르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눈가림용 정치적 쇼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산시민연합은 “향후 김 의원의 행보를 눈여겨 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진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방선거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해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양산시민연합 측도 일제 반성할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차체에 시민과 시발전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봐라 것”이라고 말했다.

웅상읍 분동·출장소 재추진

양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예산 우선배정, 농어촌혜택 감소분 보전”

경남 양산시가 주민반발 등으로 1년 이상 중단했던 웅상읍의 4개동 분동(分洞)과 출장소 설치계획을 재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양산시는 29일 “웅상출장소 설치와 함께 4개동 분동을 위해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달 중순이나 11월초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뒤 통과되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출장소와 분동 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개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웅상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해묵은 현안인 웅상출장소 설치와 4개동 분동문제를 풀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발전협의회는 이날 마라톤회의의 끝

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분동에 따라 줄어드는 농어촌 특례 보전을 위한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웅상지역발전전을 위해 예산 우선배정 등 도시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2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웅상읍에 대해 웅상출장소와 4개동 분동 설치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이 대입특례 등 각종 농어촌혜택이 감소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자 잠정 유보하다 같은해 8월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재추진에 들어갔다. 또 같은해 12월 시의회 제143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원들의 반발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유보하다 지난 6월말 제3기 시의원들의 임기가 완료되면서 관련 조례안도 자동폐기됐다 다시는 의회가 됐다.

2002년 폭우로 제방 붕괴 김해 화포천에 습지 공원

시, 15km 탐방로 설치 등 2010년까지 조성

경남 김해시가 지난 2002년 8월 폭우 때 제방 붕괴로 한림면 일원의 침수사태를 초래한 화포천에 2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가야 사북원사업과 연계한 관내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자연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화포천 주변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습지생태공원

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 240억원이 투입될 사업은 관내 진영읍과 한림면 일원을 거쳐 낙동강에 이르는 길이 13km로 면적은 2,3㎢다. 시는 이 구간의 화포천 일원 수변지역 환경정비와 습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공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우선 수변지

역의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마친 뒤 화포천 주변 15km에 일주 탐방로를 설치하고, 600평 규모의 생태교육관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길이 7.5km구간에 관찰데크를 설치하며 이 중 3.5km구간은 노출용, 1.5km구간은 은폐용, 나머지 2.5km구간은 둘출용으로 만든다. 이밖에 30평 규모의 안내소와 200여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간이휴게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춘다. 시는 또 화포천 주변의 저류지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 6ha를 매입기로 하고 내년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한다. 내년초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해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태백기자 jeong12@

“양산천 부교 거닐며 생태숨결 만끽”

삼량문화축전 기간 퇴적섬에 가설

조명장치 설치 야간에도 이용 가능

불꽃놀이 등 볼거리 다양 '축제 명물'



양산시 북부동 양산종합운동장 뒤편 양산천 둔치와 퇴적섬을 잇는 부교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협약 체결

양산시 - 부산지방보달청

경남 양산시는 28일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수행을 위해 부산지방보달청과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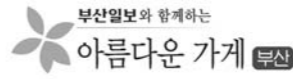
중국·홍콩·몽골과 교류 양해각서

市, 시정 순방세일즈 성과

부산시가 중국 광저우, 홍콩, 몽골 등을 순방하며 시정 세일즈를 벌였다.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허남식 부산시장과 지역 기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홍콩 몽골을 순방, 교류 양해각서 체결과 공동 관광설명회 등의 행사를 가졌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극제 서구청장 등은 지난 2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거리조성 현장에서 '부산-서구의 거리' 준공식을 가졌다. 부산시비 3억원, 구비 2억원을 들

여 몽골 미대사관 앞에서 과학대학교 앞까지 700m 구간으로 차도포장, 가로등 설치, 나무 심기 등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부산의 거리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지난 24일 시장 일행은 중국 선전에서 쉬중형 시장을 예방하고 '부산-선전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경제 무역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광저우시, 일본 후쿠오카시 등 3개국 3개 도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관광전을 개최하고 관광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민기자 yeun@

명륜동역점 30일 개점 100일 잔치



아름다운가게 부산 4호 '명륜동역점'이 30일 개점 100일 잔치를 갖는다. 이날 개점 100일 잔치 행사에는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4대 직장인들의 마라톤모임인 '막달리자' 회원들이 마라톤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받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한 4kg짜리 쌀 30포를 1인 1포

한정으로 판매한다. 또 ABC마트의 '운동화 특별전'도 열리며 한복 40점, 국내 유명브랜드의 의류 70점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가게 명륜동역점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화, 수, 목 3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다만 잔치가 열리는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였다. 정달식기자 dosol@

영락공원, 추석 추모음악회

추석을 앞둔 주말 부산 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과 참배객은 공원 안에서 연주되는 추모의 선율을 들을 수 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영락공원사업단은 다음달 1일 오후 4시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영락공원 영락원앞에서 을속도 교향악단과 공동으로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락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

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사랑을 주제로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푸치니의 '별은 빛나건만', 카르멘의 '무정한 마음' 등 클래식과 팝, 클라리넷, 바이올린 독주 등이 연주된다. 이와 함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글을 모은 '가슴발에 묻은 사랑' 낭송도 이루어진다. 성묘객과 참배객은 아이오피커를 통해 공원 어디에서나 음악과 낭송을 감상할 수 있다. 최혜규기자 iwill@

“양산천 부교(浮橋)를 걸으며 생태체험을 즐기세요.” 양산지역의 대표축제인 삼량문화축전이 2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되면서 양산천 부교와 퇴적섬이 축제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9일 양산시와 삼량문화축전추진위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도심에서 개최하던 예년과 달리 영대교 일원 양산천 둔치 3km 구간에 축전무대를 꾸미는 등 자연생태체험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양산종합운동장 뒤편 양산천 둔치에서 하천 중앙의 퇴적섬으로 걸어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길이 50m, 너비 3m 규모의 플라스틱 부교가 퇴적섬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부교는 '관람객들이 걸으면서 자연을 생각하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아 '자생교'로 명명됐다. 추진위는 또 10만여㎡의 퇴적섬 일원에 허수아비 30점을 세우고 서예 작품 100여점을 갖출 형태로 세운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배를 타고 양산천을 돌아볼 수 있는 '오리배 승선장'과 전통그네 체험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퇴적섬을 찾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소원을 빈 뒤 종을 울릴 수 있는 '소망의 종'도 설치돼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축제 관람객들이 야간에 퇴적섬을 돌아보며 양산천의 야경과 불꽃놀이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설치됐다. 또 양산천 둔치 행사장 일원에는 빛의 축제인 루미나리에 설치전과 서커스 공연, 용선체험, 소망을 담은 유등띄우기, 강변사생대회, 28개 단체 1천400여명이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 양산맛자랑, 해외예술단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른다. 축전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이 양산천 둔치 일원을 걸으며 다양한 생태·문화체험을 즐기는 한마당 참여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인 건설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와 부산지방보달청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양산시에 내 국유재산 권리보전 대상 필지수는 8천519건이다. 김태연기자